

기 념 사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 122주년 황토현 동학농민혁명전승의 위대한 역사를 기념하는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김 생기 정읍시장님과 우 천규 정읍시의회의장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승우이사장님,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갑상 회장님과 내외귀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각 지역에서 아침 일찍 부터 먼 길을 서둘러 와주신 천도교 교인여러분, 정읍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오늘의 이 자리가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며,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널리 드높이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여기 황토현, 이 자리는 122년 전 동학농민혁명의 최초의 도화선이 되었던 고부봉기에 이어 무장에서 기포한 동학군들이 백산에서 격문 반포와 군율 및 기율 제정을 통해 혁명군의 위용을 정비하고, 관군 정예부대를 맞아들여 동학농민혁명사상 처음으로 승리를 거둔 역사적인 땅입니다.

고부 관아를 들이칠 때는 일개 지방군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황토현 전투는 정식 관군을 상대로 한, 대대적인 승리를 한 곳으로, 동학혁명의 제1장이 이곳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지금 저는 승리의 그날, 이곳 황토현 정상에서 저 멀리 여명이 밝아오는 광경을 지켜보던 전봉준 대장과 농민군들의 함성과 숨결이 들리는 듯, 저의 가슴이 고동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황토현의 승리를 기반으로 황룡촌에서 다시 빛나는 승리를 거두고, 다시금 호남 전역을 석권한 동학농민군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세력을 더욱 확장하여 호남의 수도인 전주성을 무혈 입성함으로써 세계사상 유례가 없는,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완수하는 역사적인 출발점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한 뜻깊은 의미가 있는 곳이기에 이곳 황토현 정상에는 ‘동학혁명승전기념탑’이라는 기념비가 우뚝 서게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과 중국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동학혁명의 정신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찾아드는 성지 중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천도교인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동학시민 여러분!

동학농민혁명군은 단순히 탐관오리와 지배계층에 원한을 풀고자 하는 한 맺힌 농민들이 아니었습니다. 혁명군들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 후천개벽의 새로운 세상을 위해, 죽을 자리를 찾아 나선 혁명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혁명의 힘은 후천 개벽을 동학의 힘으로 일궈낼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으로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나아가 그 믿음과 희망은 시천주, 사인여천,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한울님이라는 동학 천도교의 인내천(人乃天)의 수행과 신념으로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학농민혁명은 인간 혁명이자 보국안민 혁명이며, 지상천국을 건설하기 위한 동학혁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들 동학농민군은 싸우고 이기는 전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씨를 뿌려 정성을 다해 생명을 기르는 농부들이었으며, 부모님을 봉양하는 아들이요 자식들을 보살피며 가정과 공동체의 평안한 삶을 노심초사하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들다운 아들, 아버지다운 아버지 노릇을 하고자, 그리고 나아가서 외세의 침탈에 무너져 가던 이 나라를 살리는 백성다운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굳은 신념으로 일어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동학농민군들은 이곳 황토현에서 선천 세상의 끝까지 비취지는 혁명의 횃불을 피워 올렸던 것입니다. 그 승리의 함성은 전라도를 넘어 충청도로 경상도로, 경기도를 건너 황해도와 평안도까지 메아리가 되어 널리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 개벽의 꿈은 이 나라를 넘어서서 세계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물건을 파괴하지 말라 하신 생명과 평화의 정신은 오늘 우리 사회를 살리는 교훈이 되고, 새 세상을 전망하는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바로 사람 살림, 생명 살림, 나라 살림의 혁명이었습니다. 일찍이 해월 신사께서는 갑오년의 일은 천명으로 된 것이라 하시고, 갑오년과 같은 때가 되면 다시 갑오년과 같은 일을 할 것이라 하셨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운수가 좋아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대로 실현되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3.1만세운동, 독립투쟁과 문화운동으로 계승되어 왔으며, 민주화운동에서 다시금 부활하였고, 이제 민족통일의 큰길을 열어가는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국민 모두는 자신이 알든 모르든, 모두가 동학농민군의 후예요 유족이며, 저 북녘 백두산에서 최남단 한라산까지 방방곡곡 산천경계가 모두 동학농민혁명과 동학의 성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천도교 교령으로서 이곳 황토현에 높이 솟았던 혁명의 정신과 합성을 계승한 통일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민족통일대학을 운영할 것을 구상하고 전문가와 협의하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통일운동을 계기로 서로 상승의 기운을 탈 때, 동학농민혁명의 국가기념일 제정 문제나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라고 하는 공통의 화두도 밝은 빛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천도교인 여러분! 그리고 동학시민 여러분!

세계도처에서 동학의 운수가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운수 속에는 122년 전 동학농민군들의 합성과 염원이 깃들어 있고, 오늘 이 순간 이곳으로 전해지는 동학에 대한 염원과 기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국 각지에서 각양각색으로, 동학을 공부하는 모임과 강좌가 만들어지고,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동학의 사상과 역사 속에서 미래 사회의 대안을 찾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곳 황토현은 그러한 동학의 역사적 시간과 미래의 시간, 지역적 황토현과 세계적 지평으로 열린 동학의 광장으로서의 황토현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동학 천도교라는 큰 이름과 정신 아래 동귀일체의 정신을 회복하여 각자위심을 떨쳐 버리고, 동학의 새로운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근대 자본주의의 식민지 쟁탈의 끝자락에서 고통 받았던 시대가 122년 전 동학농민혁명에서의 뼈아픈 패배와 수십만 동학농민군의 희생으로 나타났다면,

다가오는 후천개벽 시대는 동학의 모심의 진리와 살림의 철학, 동학농민혁명의 후천개벽 정신을 통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동학농민혁명은 역사 속의 혁명이 아니라 미래의 혁명입니다. 이곳 황토현에서의 전승은 생명존중의 미래 세계로 가는 혁명의 출발점이며, 동학의 정신을 세

계로 전하는 봉화대이며, 민족통일의 기운을 퍼 올리는 통일의 원천입니다. 운수는 다가오고 있으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각자의 몸과 마음을 닦고 단련하여 지혜의 동학군, 생명살림의 동학군, 통일개벽의 동학군으로 거듭나고, 서로 연대하며, 함께 발맞춰 나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세계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요충지인 이곳 황토현에서 동학농민군들의 혁명정신과 그 거룩한 희생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천도교단과 또 전국의 동학단체와 동학시민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 동학의 정신으로 개혁과 통일을 이루고 생명평화의 새 세상을 맞이할 것을 기원하면서 기념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포덕 157(2016)년 5월 11일

천도교교령 이 정희 심고